TV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굿모닝 A 1부	00 KBS 뉴스광장	00 2014 인천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인천 2014특집 모닝와이드 1~2부
7	10 아침경제 골든타임	50 인간극장	00 굿모닝대한민국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00 굿모닝 A 2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오늘아침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튼튼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10 인천 2014특집 SBS 뉴스 40 SBS 대기획 〈비밀의 문〉(재)
11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15 사랑의 가족 45 수목드라마 〈아이언맨〉(재)	00 주말특별기획 〈마마〉(재)	50 인천 2014특집 SBS12뉴스
12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00 MBC 정오뉴스 20 찾아라 맛있는 TV스페셜	20 건강클리닉
0	30 뉴스 특급	00 여기는 인천 〈조정 각종목 결승 외〉	00 KBS 뉴스타임 10 퀴즈쇼 사총사(재)	20 출발 비디오여행 스페셜	20 세계 대기행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2	40 직언직설			15 2014 인천아시안게임 〈사격 남 25 m 속사권총 결선〉	00 인천 2014특집 SBS 뉴스 10 인천 2014 〈사격 남 권총
3	55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KBS 뉴스 10 시사기획 창(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유후와 친구들(재) 55 여기는 인천 〈남자 핸드볼 본선		30 파이스토리2
4	55 허종대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튼튼 생활체조(재)		00 응까 소나타 30 똑똑 키즈스쿨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그래피	한국전〉	00 MBC 이브닝 뉴스 45 2014 인천아시안게임 〈펜싱 여플뢰레 남 사브르 단체 결승〉 〈역도 남 85kg 결선〉 〈농구 남 예선〉	00 인천 2014특집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인천 2014 야구예선 〈대한민국vs대만〉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2014 인천아시안게임 〈최조 남 마루 결승〉	00 여기는 인천 〈남자 야구 예선 - 대한민국vs대만 남자 계영 400, 100 m		
7	20 웰텀 투 시월드(재)	30 필통	결승〉		
8	20 관찰 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10 MBC 뉴스데스크	30 인천 2014특집 SBS 8 뉴스 40 KBC 8 뉴스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생방송 집중토론(재) 50 숨 터	00 수목드라마 〈아이언맨〉	00 수목미니시리즈 〈내 생애 봄날〉	00 드라마 스페셜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Œ)	00 내조의 여왕(재)	00 KBS 뉴스라인 40 다시보는 불멸의 이순신	10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달콤한 나의 도시
12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①:40 라이벌 매치 압도적7	5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①:30 생활의 발견	30 2014 인천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①:30 한국인의 밥상(재)	35 MBC 뉴스 24 55 2014 인천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35 인천 2014특집 나이트 라인 ①:05 인천 2014 하이라이트

EBS

05:00	World News Review
05:40	엄마없이 살아보기(재)
06:10	세계의 눈 〈자연〉(재)
	시계마을 티키톡(재)
07:15	
	잭과 팡(재)
	로보카 폴리(재)
	딩동댕 유치원
08:20	뽀롱뽀롱 뽀로로(재)
08:35	방귀대장 뿡뿡이
08:50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9:35	따개비 루

09:40 부모 (육아를 부탁해) 10:1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20 세계테마기행 〈탄자니아〉(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초대석 13:05 지식채널e 13:10 부모광장(재) 13:40 내 이름은 펑커 13:50 뛰뛰빵빵 올리 14:00 시계마을 티키톡

14:15 치로와 친구들

14:30 미술탐험대 14:45 미앤마이로봇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05 어린왕자 15:30 정글북 15:50 모피와 친구들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버블버블 마린 16:35 원더볼즈 16:45 Why-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7:30 로보카 폴리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열전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내포기행〉 21:50 EBS 다큐 프라임 〈생과 사의 강 브라마푸트라〉 22:45 극한직업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프랑스 와인기행〉 24:05 지식채널e(재) 24:10 한국영화특선 〈즐거운 인생〉

9월 24일(음 9월 1일 戊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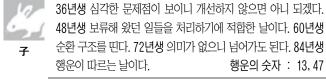
EBS플러스1

00:00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11:40	박봄의 이슈트	로 만나는 경제
	〈한국사〉	12:10	703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01:50 "	〈한국지리〉			〈수학 I B형〉
01:40 수능특강 light	t 〈영어-독해〉	13:00	"	〈국어 B형〉
02:30 "	〈영어-듣기〉	14:00	"	〈물리Ⅱ〉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14:50	"	〈화학Ⅱ〉
04:10 "	〈과학〉	15:40	"	〈생명과학Ⅱ〉
05:00 "	〈한국사(하)〉(재)	16:30	"	〈지구과학Ⅱ〉
05:50 2013 포스	〈수학Ⅱ〉	17:20	"	〈사회문화〉
06:40 압축탐스런	〈생명과학 I 〉	18:10	"	〈경제〉
07:30 2014 포스	〈문학Ⅱ〉	19:00	"	〈영어〉
08:20 수능특강 ligh	t 〈영어-독해〉(재)	20:00	EBS-N제	〈국어 B형〉(재)
09:10 "	〈영어-듣기〉(재)	21:00	"	〈수학 B형〉(재)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22:00	인터넷 수능	〈문학 A형〉
10:50 2013 포스	〈수학Ⅱ〉(재)	23:00	√ 〈영어 □	독해연습①-종합편〉

EBS플러스2

07:00	2014 공인	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사회3-2〉
07:30	친절한 수	학 익힘풀이 〈6-2〉	15:50	"	〈사회4-2〉
08:00	전산세무화	회계 시험대비 강좌	16:20	"	〈사회5-2〉
08:30	전기기사/선	난업기사 시험대비 강좌	16:50	"	〈사회6-2〉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품	풀이
09:50	"	〈수학1 (하)〉			〈전과목 6-2〉
10:30	"	〈도덕1〉	18:00	TV 중학	〈영어3-2〉
11:10	"	(국어③④)	18:40	"	〈수학3-2〉
11:50	"	〈수학2(하)〉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12:30	중학 중간,	기말 시험대비 문제풀이	20:00	EBS 인문학 특징	<u>}</u>
		〈사회1-2〉	20:50	EBS 기획시리즈	
13:10	"	〈과학1-2〉	21:40	한국기행	
13:50	"	〈과학2-2〉	22:00	등업신공	〈역사(하)2〉
14:30	"	〈역사1-2〉	22:40	한국사 능력 검정시	시험〈중급〉
15:20	중간학업성	성취도평가 대비특강	23:20	중학 e포스 영문	법 3

知天命이 설문 오늘의 운세





37년생 집착하게 하는 요인이 발생한다. 49년생 혁신적인 방안 의 강구가 절실한 때이다. 61년생 즉시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야 겠다. 73년생 학수고대 해왔던 바가 성사 되리라. 85년생 활용 가치를 간과하지 말자. 행운의 숫자 : 56,05



38년생 다층적인 점검과 빈틈없는 계획의 수립이 절실한 때이 다. 50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 된다면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 이다. 62년생 기쁨에 취하겠다. 74년생 흐르는 물도 떠 주면 공 덕이 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20,14



39년생 확실하게 절제하지 않는다면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된 다. 51년생 효과는 배가하게 될 것이다. 63년생 하찮게 여겨왔던 것 속에서 기회의 열쇠가 있을 수다. 75년생 대체함이 더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3, 27



40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는 사실을 실감하리라. 52년생 실제 효 력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64년생 가까운 곳에 하자가 있으니 잘 살펴보라. 76년생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면 자제하자. 행운의 숫자 : 64,98



41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니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임하 라. 53년생 기묘하게 연계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5년 생 근본 원인을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77년생 진면모가 드러 나리라. 행운의 숫자 : 82,65

42년생 지나치다면 위험한 형국을 자초할 수도 있느니라. 54년 생 겉으로는 쉬워 보이나 까다로울 것이다. 66년생 가까스로 벗 어나게 되는 형상이다. 78년생 폭 넓은 시야가 발전적인 단계로 행운의 숫자 : 78,36



午

43년생 예상하지 못했던 바를 얻게 되는 길조가 따른다. 55년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독창성과 개 성의 발현이 절실히 요구 된다. 79년생 탄력을 받으면서 일취월 장하리라. 행운의 숫자 : 37, 46

44년생 위상에 맞게 적당히 조절해야 할 때가 되었도다. 56년생



수시로 불어대는 잔바람에는 전혀 개의치 말라. 68년생 실과 허 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당하다. 80년생 평길을 도모할 정도는 되겠다. 행운의 숫자 : 77,86 45년생 상태를 정비하고 재충전해야 할 시기이다. 57년생 종합

적이고 계속적일 필요가 있다. 69년생 대세에 순응할 수 있는 현



명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81년생 원초적인 것을 살펴본다면 해 결책은 쉽게 나온다. 행운의 숫자 : 84, 79 46년생 무리한다면 머지않아 곤혹스러워질 것이다. 58년생 흉



의 기운이 시라지면서 길성이 비추어오고 있도다. 70년생 상호 증진을 위한 아픔이 보인다. 82년생 명예나 재물이 스스로 따르 는 모습이로다. 행운의 숫자 : 87,01



47년생 자신의 입지가 상승세를 타면서 굳혀지는 성국이다. 59 년생 팔이 들이 굽지 내 굽지는 않는 법이다. 71년생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83년생 주변으로부터 많은 영향 을 받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2,9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신선함이 있다는 점이 '제보자' 매력이죠."

오는 10월 2일 개봉하는 영화 '제보자'에 대한 주연 배우 박 해일(37)의 평가다. 그 평가는 '제보자' 속 박해일 자신의 연기 에도 충분히 빌려올 수 있을 것 같다.

박해일은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신선함'으로 대중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외롭지만 용기를 내어 힘차게 싸우는 언론인 의 모습을 훌륭히 소화했다.

박해일은 지난달 제작발표회에서 데뷔작 '와이키키 브라더 스'(2001)를 연출한 임순례 감독의 제안이니만큼 덥석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가 임 감독으로부터 "사람이 아닌 시나리오 를 믿어야 한다"는 애정 어린 꾸중을 들은 바 있다.

박해일은 23일 "나로서는 임순례 감독이 불러준 데 대한 반 가움의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시나리오를 받아 보고서야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았죠."

'제보자'는 잘 알려진 것처럼 2005년 우리 사회를 뒤흔든 황 우석 당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소 재로 한 작품이다.

성역이 된 황 교수의 의혹을 추적하면서 한때 전국민적인 비 난에 시달린 한학수 당시 MBC 'PD수첩' PD가 박해일이 분한 윤민철 PD의 모델이다. 시나리오를 열어 본 박해일에게 부담 과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제가 출연을 고민한 이유에는 그 사건을 다룬 영화라는 부 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접하지 않았던 성격의 작품이다 보니 캐릭터를 어떻게 잡아서 영화에 잘 녹아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일 컸어요."

그러나 박해일은 평소 연기하면서 자연스레 접하는 언론인 들을 보면서 "언론인으로 일하면서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어보고 싶은 마음도 컸기에 고민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고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다들 아는 정도로 언론을 통 해 접해본 기억이 전부"였다는 박해일은 다른 출연 배우, 스태 프와 기본적인 생명공학 강의를 듣는 등 준비에 속도를 냈다.

박해일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실제 모델인 한학수 PD와의 인연도 궁금해졌다.

"한 PD가 촬영 현장에 한 번 찾아왔기에 인사를 나누는 정 도로 뵙고 계속 촬영에 임했다"는 박해일은 "(조언을 듣고) 그 럴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한 PD를 단순히 본뜨지 않으려 고 노력한 모습이었다.

"한학수 PD로부터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만 큼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윤민철이라는 인 물을 만드는 데 한계가 되는 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요. 그래서 실존한 인물만 따라가기보다는 진실을 더 능동 적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언론인 느낌들을 따라갔어요. 특정한

언제고 순박한 청년일 것 같은 배우 차태현(38)도 토끼 같은

자식만 셋을 둔 가장이다.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차태

현이 여행 버라이어티인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에 2

년이 넘도록 성실히 출연하는 가장 큰 이유도 아이들 때문이

다음달 영화 '슬로우 비디오' 개봉을 앞두고 만난 차태현은

"TV에 안 나오면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

요. 영화는 1천만 명이 봤어도 사람들이 '요즘 무얼 하느냐'고

묻거든요. 예전에 '하이마트' 광고를 찍었는데 광고는 TV에 노

출되는 빈도가 높잖아요. 그때 광고 찍는다고 1년에 겨우 닷새

일했는데도 사람마다 제게 '너무 바쁘시죠'라고 말하더라고요.

차태현은 잔잔하고 소소한 재미가 있는 영화 '슬로우 비디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아빠의 모

습을 보여줬으면 했다"면서 예능 출연 배경을 설명했다.

다.

(웃음)"

모델만 따라가면 좁은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임 감독 이 구상한 윤민철은 "근성도 있으면서 귀여운 구석도 있으며 어찌 보면 그렇게 상반된 속성을 가진 만큼 유연한 인물"이라 는 게 박해일의 설명이다.

박해일은 별다른 변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 옷을 입은 듯이 자연스러운 모습의 윤민철을 만들어 냈다. 관객들은 윤민철의 감정을 고스란히 따라가면서 영화에 몰입한다.

다만 영화 중반부 제보자(유연석)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윤 민철이 "내 경력, 내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왔다"며 제보자에 게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은 튀는 느낌이다.

박해일은 이러한 지적에 "그 부분은 윤민철에게 직업적으로 어울리면서도 매력 있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그 부분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낸 다음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던 윤민철의 심리전일 수도 있어요. 윤민철이 '나한테 지 금 감추는 것 있죠?'라고 제보자에게 예의 있게 말했다면 제보 자가 더 큰 진실을 털어놓았을까요? 그만큼 윤민철은 '초짜'가 아니고 매서움과 관록이 있다고 봐요."

'제보자'는 '추적자'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만큼 도입부부터 국민적 영웅인 이장환 박사(이경영)에 대한 윤민철의 진실 쫓 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박해일이라는 배우의 힘도 있겠지만 윤민철이란 캐릭터에 훨씬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도 제보자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맨 처음 제 보에 의해 윤민철이 움직였고 결국 제보자가 없었다면 윤민철 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지 못했겠죠.

영화의 또 다른 매력은 배우들이 주고받는 호흡이다.

박해일은 지난 겨울 3개월간의 촬영 현장을 복기하면서 "모 두 자기 색깔이 분명한 배우들이지만 서로 튀려고 하지 않고 상 황에 맞추다 보니 굉장히 기분 좋게 균형이 맞춰진 채 흘러간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

극중 맞수인 이경영에 대해서는 "촬영할 때는 본인 역할에 집중하지만 쉴 때는 정말 유연하고 상대에 에너지를 불어 넣 어주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하나하나 공을 들이지 않은 장면이 없겠지만 그는 윤민철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결국 이장환 박사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기 억에 남는다고 했다.

또 윤민철이 'PD추적'이 방송될 수 있도록 방송사 사장 앞에 서 온몸을 던지는 장면도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로 꼽았다.

"어떤 톤으로 해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장면이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그러다 상황에 맡긴 채 찍 었는데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누가 회사 윤리강령을 외우고 다니겠어요. 그러나 임 감독은 그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고 봐요."

'제보자'로 그의 알찬 필모그래피에 의미 있는 작품 하나를 추가한 박해일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 아이 키우는 재미로 살죠"

'엽기적인 그녀'2 촬영 앞둔 차태현

오'처럼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일상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찾는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7시30분에 큰아이를 등교시키고 9시30분에 둘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가 더 남아 있어 요. 남은 아이를 돌본 다음 11시에 영화관으로 가요. 영화를 보 고 나면 오후 2시에 큰아이가, 2시30분에 둘째 아이가 와요. 세 아이를 돌보다가 밤 9시께 재워요. 그러고 나서는 술 먹으러 나 가죠. (웃음)"

차태현은 "아이들은 그때그때 새로운 재미를 보여준다"면 서 "얼마 전 큰아이가 학교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에 보러 갔는데 연주를 정말 못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주를 못 하면 서도 귀여워서 대견스러웠다"고 웃음을 지었다.

점점 커가는 세 아이는 그의 작품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2001년 영화 '엽기적인 그녀'가 아시아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해외에서 함께 하자는 요청이 쏟아졌음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이들 때문에 고려하게 됐다 는게 차태현의 이어진 설명이다.

13년 만에 전지현 없이 '엽기적인 그녀'2 촬영을 앞둔 차태현

에게 왕년의 이야기를 다시 물었다. "3~4년 반짝이긴 했지만 스타였던 점은 굉장히 소중한 경 험이에요. 스타를 경험해 봤으니 버티는 것이지, 못 해봤다면 계속 동아줄을 잡으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언젠가 는 분명히 아래로 떨어질 텐데 정말 멋있게 내려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는 차태현은 "멋있게 내려오긴, 똑같이 내 려오더라"면서 웃었다.